

■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인사노무관리”(조성재 연구위원)

- 제조업의 해외 진출 성향이 높은 데 비하여 비제조업의 경우는 내수 의존적인 사업구조, 서비스 발생의 공간적 제약(비이동성 혹은 비교역재) 등의 특성이 반영되어 해외 진출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에서도 중공업의 진출 성향이 경공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는 약 40%, 비 제조업은 약 16% 기업이 해외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수행중임.
-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는 노동문제, 특히 인건비 요인과 해외시장 개척의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해외의 선진기술을 흡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의처 :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김용현 연구원

Tel : 783-7155 E-mail : yhk08@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조성재 연구위원
전화	02)786-3265

### 1. 제조업의 해외진출 현황

-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3차년도(2004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해외진출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 등이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봄.
- 비제조업을 포함하여 1,875개 기업 중 14.1%의 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 중이며, 12.2%의 기업이 이미 해외 사업을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의 경우는 40% 이상의 기업이 해외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남(비 제조업은 약 16%).
- 기업규모별로는 고용 및 생산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진출 성향이 39%에 이르고 있음(300인 미만 중소기업 8.8%, 300인 이상 대기업 19.8%해외진출).

### 2. 제조업의 해외진출 요인

- 제조업의 해외 진출 성향이 높은 데 비하여 비제조업의 경우는 내수 의존적인 사업구조, 서비스 발생의 공간적 제약(비이동성 혹은 비교역제) 등의 특성이 반영되어 해외 진출 성향이 낮은 것으로 풀이됨.
  - 제조업 중에서도 중공업의 진출 성향이 경공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는 노동문제, 특히 인건비 요인과 해외시장 개척의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해외의 선진기술을 흡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함.
  - 제조업 대분류별 해외 진출요인을 살펴보면,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에서 노동요인에 따른 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섬유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고인건비로 인하여 한계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의미(표 1 참조).

<표 1> 제조업 대분류별 해외진출 요인

	빈도			비율(%)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인건비높아	47	104	151	27.6	24.2	25.2
노사관계	5	9	14	2.9	2.1	2.3
인력난	22	34	56	12.9	7.9	9.3
나쁜국내여건	12	30	42	7.1	7.0	7.0
시장개척위해	49	159	208	28.8	37.0	34.7
좋은해외여건	22	48	70	12.9	11.2	11.7
선진기술흡수	4	20	24	2.4	4.7	4.0
국내역수입	7	18	25	4.1	4.2	4.2
기타	2	8	10	1.2	1.9	1.7
합계	170	430	600	100.0	100.0	100.0

- 해외진출 업체들의 진출 요인을 노동요인(인건비, 노사관계, 인력난)과 여타 요인(주로 해외의 유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인사관리의 특성에 따라 해외진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노동요인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인사관리와 경영전략과의 정합도가 여타요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체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해외진출 제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시작하거나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력난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의 인력난 정도가 더 큰 것이 확인되었음.
-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중공업 대기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 업체들과 중소 한계기업들로 크게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